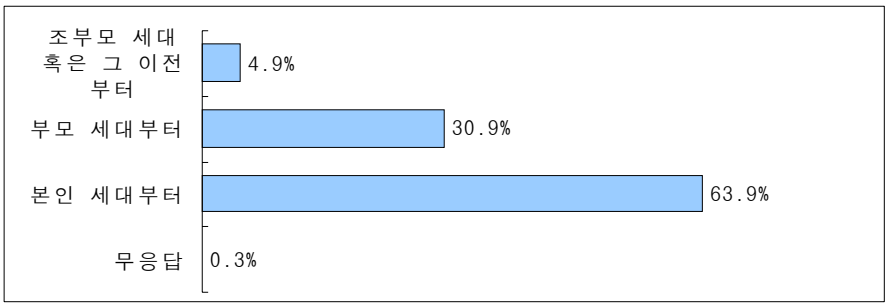
2004 서울 서베이[1]를 통해 본 서울시민의 정체성과 사회적 태도

- 서울시민의 서울 거주 현황
- 서울시민의 고향의식
- 서울 축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
-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서울시민의 서울 거주 현황

○ 서울에서의 거주 현황

- 서울시민들이 언제부터 서울에 살아왔는지를 알아본 결과, 서울시민의 10명 중 6~7명 정도인 63.9%가 본인 세대 때부터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음. 부모 세대 때부터 서울에 거주했다는 비율은 30.9%, 조부모 혹은 그 이전 세대 때부터 서울에 살아왔다는 비율은 4.9%였음.
- 대개 조부모 세대부터 서울에 살아온 사람들을 서울 토박이라고 한다면 서울시민 중 토박이의 비율은 4.9% 정도로 낮음. 대다수의 시민들이 직장을 위해 혹은 교육을 위해 서울로 이주해 왔음을 추론할 수 있음.



[그림 1] 서울에 정착한 시기

1) 2004 서울 서베이는 서울시 20,000여 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문화생활, 가구상태 등을 포괄하는 서울시의 도시사회정책지표에 관한 조사임. 서울 서베이는 2003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번 2004 서울 서베이는 2004년 10월 한달 동안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 유효표본가구는 20,139가구 49,455명의 가구원임. 서울 서베이의 서울시 주관부서는 정보화기획단임.

○ 서울 정착시기 구(區)별 현황

- 조부모 세대부터 서울에서 살아왔다는 소위 서울 토박이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종로구(8.1%), 중구(6.6%), 마포구(6.6%) 강남구(6.6%) 등으로 나타났음. 본인 세대 때부터 서울에 거주했다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금천구가 69%로 가장 높고, 영등포구 67.8%, 구로구 67.7%의 순임.

<표 1> 서울 정착시기 구(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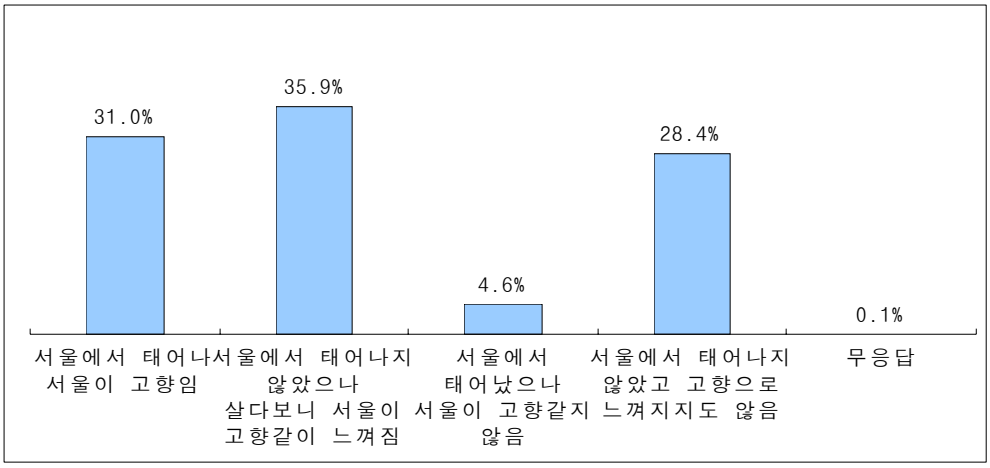
(단위: 건, %)

	사례수	조부모 세대 이전	부모 세대부터	본인 세대부터
전체	49,455	4.9	30.9	63.9
도심권 전체	3,014	6.4	32.7	60.7
종 로 구	844	8.1	26.3	65.3
중 구	926	6.6	36.3	56.9
용 산 구	1,244	5.2	34.3	60.3
동북권 전체	16,004	4.5	31.8	63.4
성 동 구	1,441	6.2	30.4	62.5
광 진 구	1,736	2.8	31.9	65.3
동대문구	1,855	4.6	35.0	60.4
중 랑 구	2,072	4.5	31.0	64.5
성 북 구	2,279	3.8	32.7	62.8
강 북 구	1,851	5.1	32.1	62.8
도 봉 구	1,924	4.5	29.9	65.4
노 원 구	2,846	5.1	31.4	63.4
서북권 전체	6,060	5.4	31.3	62.8
은 평 구	2,450	4.3	32.5	63.0
서대문구	1,733	5.8	29.1	64.5
마 포 구	1,877	6.6	31.9	61.1
서남권 전체	14,052	4.3	29.2	66.3
양 천 구	2,125	4.3	30.6	65.1
강 서 구	2,570	6.1	30.4	63.5
구 로 구	1,980	3.8	28.1	67.7
금 천 구	1,198	3.9	26.9	69.0
영등포구	1,850	3.8	28.3	67.8
동 작 구	1,979	4.0	29.9	65.6
관 악 구	2,350	3.7	29.0	67.1
동남권 전체	10,325	5.5	31.0	62.9
서 초 구	2,059	5.9	31.2	61.6
강 남 구	2,813	6.6	32.2	61.0
송 파 구	3,235	4.6	29.5	64.9
강 동 구	2,218	4.8	31.5	63.8

서울시민의 고향의식

○ 서울에 대한 고향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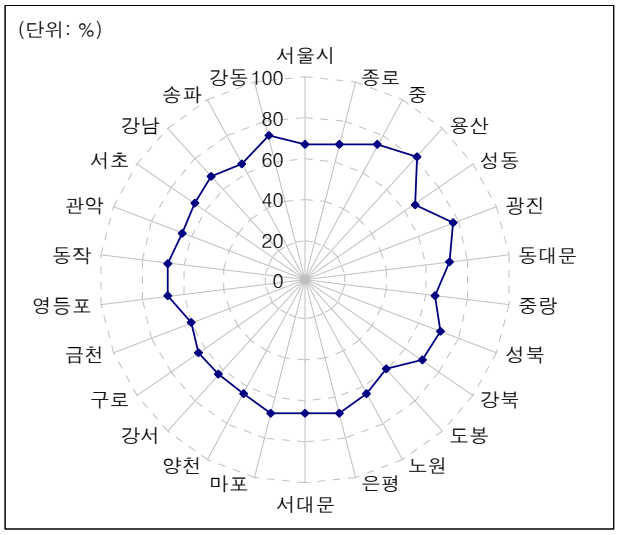
- 도시민이 도시공간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소속감으로 대표되는 지역 정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함.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서울을 고향으로 느끼는 정도'를 설정하여 서울 서베이를 통해 파악하여 보았음.
- 그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6~7명 정도인 66.9%는 서울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전체 서울 시민 중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이 고향이며 고향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은 31%이며, '서울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으나 살다보니 서울이 고향같이 느껴진다'는 비율은 35.9%로 나타남.



[그림 2] 서울시민의 서울에 대한 고향의식

○ 서울에 대한 고향의식의 구(區)별, 세대별 차이

- 서울을 고향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높은 지역은 전통적인 도심지역인 것으로 나타남(도심권의 70.2%가 서울을 고향으로 인식함), 구(區)별로 볼 땐, 용산구(81.6%)가 서울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진구(77.2%), 중구(75.4%), 강동구(72.4%), 동대문구(70.9%), 성북구(70.5%)가 주민 70% 이상이 서울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음. 반면, 도봉구(58.4%)와 금천구(59.6%)는 서울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주민 비율이 가장 낮음.



〔그림 3〕 구(區)별 고향 인식도

- 한편, 서울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은 세대별로도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50대의 52%, 그리고 40대의 42%는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나 살다보니 서울이 고향같이 느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그러나 30대의 경우, 서울에 태어나지 않았으나 서울을 고향으로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28%)에 비해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33%)이 좀 더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조사결과로 볼 때 서울 인구구성의 중심부인 30대 장년층이 서울에 대한 소속감으로서의 고향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민으로서의 소속감 유무에 따른 축제 참여경험

- 서울을 고향으로 느끼는 시민들과 그렇지 않은 시민들 간에 서울축제에 대한 참여경험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 태생이면서 서울을 고향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23.8%, 타지역 태생이지만 서울을 고향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24.1%가 서울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서울 태생이지만 서울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는 시민의 20.8%, 타지역 태생으로 서울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는 시민의 20.3%만이 서울 축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에 대한 고향의식 유무에 따라 축제 참여의 정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음.

<표 2> 서울시민으로서의 소속감 유무에 따른 축제 참여경험

		서울축제 참여경험(%)		
		경험	비경험	전체
서울에 대한 고향 인지도	서울 태생, 고향이다	23.8	76.2	100.0
	서울 태생, 고향같지 않다	20.8	79.2	100.0
	타지역 태생, 고향같다	24.1	75.9	100.0
	타지역 태생, 고향같지 않다	20.3	79.7	100.0
	전체	22.8	7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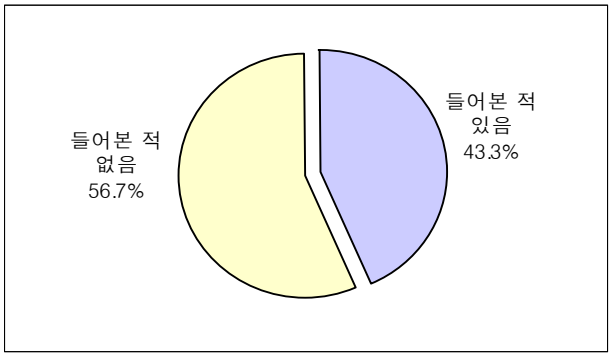
(x^2 = 34.33, p = .000)

- 현재 서울시에서는 하이 서울 페스티벌, 지역축제 등 서울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서울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음. 향후에도 이러한 서울시민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하고 시민참여의 유도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소속감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서울 축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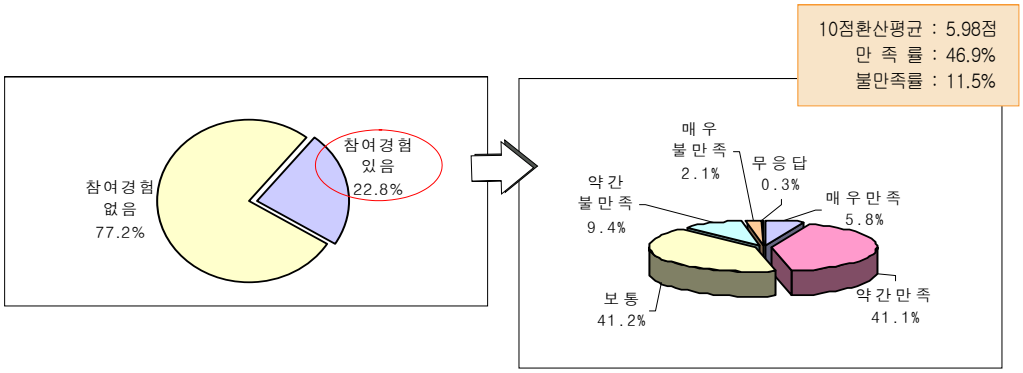
○ 하이 서울(Hi Seoul) 페스티벌에 대한 인지도

- 2003년부터 시작된 서울의 대표적 축제인 하이 서울(Hi Seoul) 축제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민 10명 중 4명 정도(43.3%)만이 이 축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서울축제에 대한 인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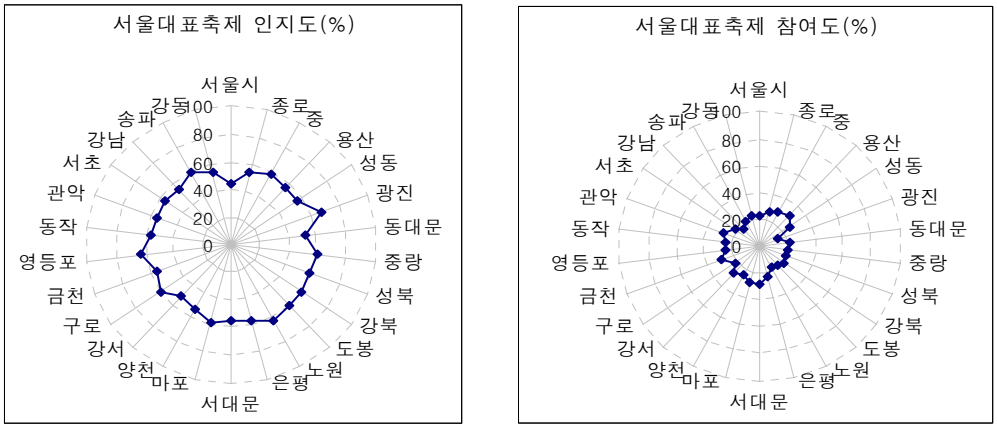
- 한편 서울시민의 22.8%는 하이 서울 페스티벌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참여자들이 느끼는 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8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냄.



〔그림 5〕 서울축제 참여율과 만족도

○ 하이 서울(Hi Seoul) 페스티벌 참여자 구성과 시사점

- 먼저 하이 서울 축제에 대한 인지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반면, 이러한 인지도의 차이에 비해 참여도의 차이는 약간 더 크게 나타남.
- 따라서 이러한 서울 축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정책과 함께, 서울 축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축제의 광장으로 끌어들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하이 서울 페스티벌이 서울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서의 종합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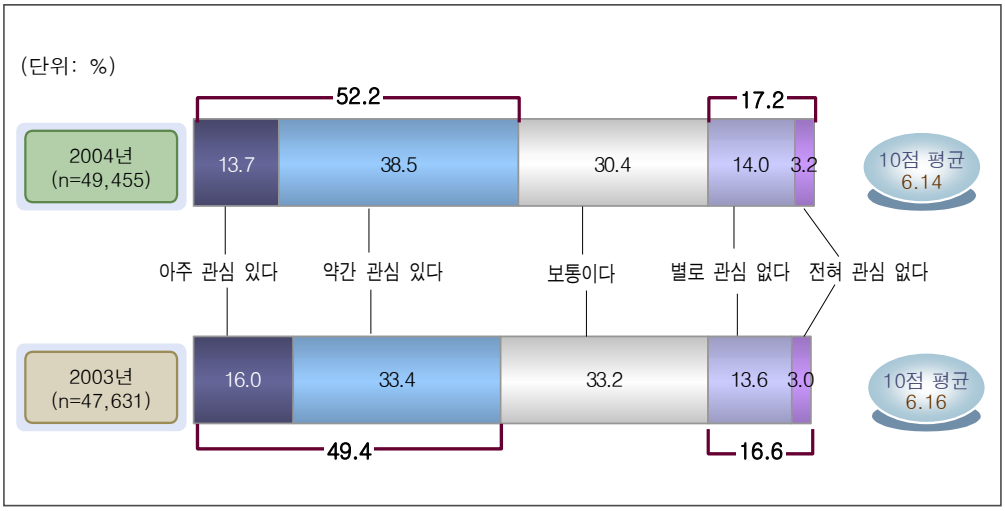


〔그림 6〕 구(區)별 서울 축제 인지도와 참여율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도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음.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환경상품에 대한 관심 정도를 파악한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5명 이상이 환경상품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아주 관심 있다 13.7% + 약간 관심 있다 38.5%), 보통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30.4%의 시민까지 포함한다면 시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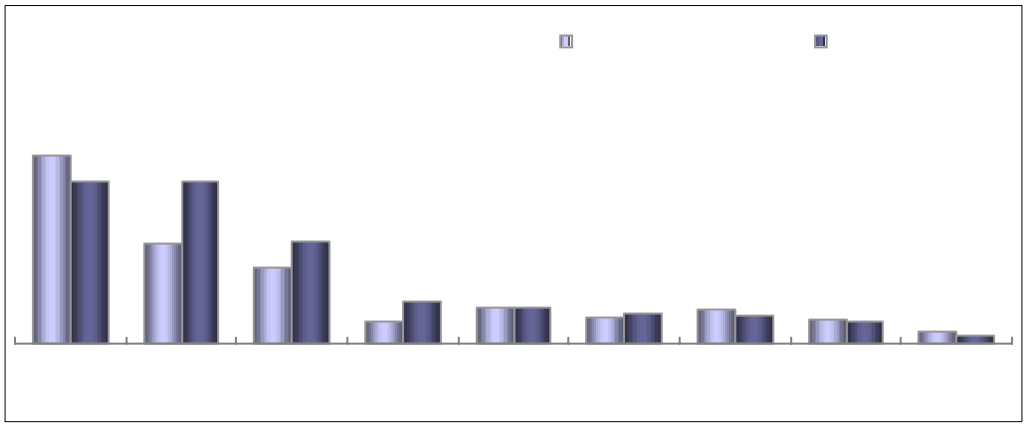


* 2004년 무응답: 0.2%, 2003년 무응답: 0.8%

[그림 7] 환경상품 관심도

○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

- 시민들의 환경보전관련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역시 2004년 평균 3.2회로 작년 조사결과 2.0회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 평균 자원봉사시간 역시 평균 3.4시간으로 작년의 2.8시간에 비해 증가하였음.



〔그림 8〕 자원봉사 참여횟수

- 이러한 관심과 환경관련 활동의 증가는 도시의 환경중심적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향후 시민의 일상생활 각 영역에서 다양한 환경 이슈와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변미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303
miree21@sdi.re.kr

강영옥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 구 위 원
02-2149-1291
ykang@sdi.re.kr